

P-X, 국제유가 상승에 3월 가격압박

한은, 자일렌 중간가격 11.9% 올라 ... 원자재 가격부담 금속제품 곤란

2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가격 상승으로 3월 화학제품 중간재 물가가 자일렌, 에틸렌, SM 등이 전월 대비 2.9% 상승했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4년 3월 국내 화학제품 가격은 자일렌이 11.9%, P-X(Para-Xylene)가 11.7%, 에틸렌이 9.8%, SM(Styrene Monomer)이 7.9%, 프로필렌이 7.2% 오르면서 중간가격이 2.9% 상승했다.

중간재 물가 등락률(2004.3)

(단위: %)

구 분	등락률	주요 품목
화학제품	2.9	자일렌(11.9), 에틸렌(9.8), SM(7.9), P-X(11.7), 프로필렌(7.2)
금속1차제품	6.3	열연광폭대강(16.9), 중후판(14.8), 선철(46.1), 일반철근(11.1), 나동선(23.3)
전자부품/영상/음향/통신장비	▽1.1	집적회로(-0.5), TFT-LCD(-1.7), 웨이퍼(-6.4)

† 전월대비

금속1차제품은 고철 및 비철금속 가격상승으로 열연광폭대강, 중후판, 선철, 일반철근 등이 전월대비 6.3% 상승했으며, 전자부품, 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는 수요부진 및 주요통화에 대한 원화환율 하락으로 집적회로, TFT-LCD, 웨이퍼 등이 전월대비 1.1% 하락했다.

한편, 수요부진 및 원화환율 하락으로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물가가 하락했으나 원료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화학제품과 금속1차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선행지표의 성격을 띤 중간재 물가는 전월대비 1.8% 상승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3/22>